

이문열 『변경』의 탈식민주의적 성격에 관한 연구

권 유 리 야*

차 례

- | | |
|------------------------------|----------------------------------|
| I. 서론 - 식민주의로 나아가는 두 가지 경로 | III. 변경론, 식민지 지식인의 자기 부정과 동일자 지향 |
| II. 혁명론, 제국주의 이항대립적 통치논리의 모방 | IV. 주변부 문학, 포괄적이고 경계가 없는 지배권력 |
| | V. 결론 - 미완의 기획으로서의 탈식민주쟁 |

I. 서론 - 식민주의로 나아가는 두 가지 경로

1979년 「새하곡」으로 등단하여 현재까지 무려 30권에 이르는 중·단편과 장편을 통하여 중량감 있는 작품들을 잇달아 선보여온 이문열의 문학 세계에서 『변경』은 유독 두드러지는 작품이다. 자신의 30년 문학 이력에 축적된 모든 직접 간접의 경험, 기억과 사유, 그리고 양식과 기교를 아낌없이 썼다는 작가의 말¹⁾을 빌리지 않더라도, 『변경』에는 작가의 핵심적인 특징들이 총망라되어 있

* 부경대학교 강사

1) 이문열, 『변경』(문학과지성사, 1998), 7쪽

기 때문이다. 방대한 자료를 작가 자신의 독특한 주관적 틀을 거쳐 조정해낸 시대 인식을 거침없이 토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변경』은 매우 주목할 만한 작품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변경』에 대한 연구는 주로 단편 수준에 머물러 있고, 본격적인 연구는 1편²⁾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변경』의 완성이 1998년 11월이기는 하지만, 1986년 8월에 착수하여 1부와 2부가 지속적으로 출간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수로 20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본격 연구 없이 묵혀둔 셈이 된다. 따라서 이제는 『변경』에 대한 학문적인 차원의 연구에 착수해야 할 시점이다.

그간 『변경』에 대한 몇몇 단편적인 논의들³⁾은 대체로 이명훈·이영희·이인

2) 정지아, 「이문열론」,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3) 『변경』의 연구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혜경(「변경(邊境)을 벗어나는 몇 가지 방법」, 『세계의문학』 91, 1999)은 작가의 모습에 가장 밀착되어 있는 인철이라는 인물이 유년에서 벗어나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확보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작가의 자전적 성격이 시대적 현실과의 만나는 지점을 모색하고 있다. 김치수(「분단현실과 아버지 콤플렉스」, 『동서문학』 233, 1996)는 『변경』을 1960년대를 중심으로 율복한 아버지를 둔 가족들이 남쪽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라고 하면서, 그런 점에서 『변경』을 『영웅시대』의 후편으로 볼 만하다고 말한다. 권오룡(「『변경』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문학과사회』 44, 1998)도 인철을 작가의 분신으로 보는 자전적 작품이라는 입장은 정혜경의 글과 동일하다. 다만 인철을 통해서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는 방랑의 여정을 변경으로 보고 있다는 점은 다르다. 김주연은 「아버지 상징, 그 파괴의 서사적 힘」(이문열, 『변경』 12, 문학과지성사, 1998)에서 좌·우 이데올로기가 이들 일가에 억압적으로 작용하면서 이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만들어준 역설적인 에너지를 ‘어두운 열정’으로 포착한다. 그리고 이들 일가가 살아가는 힘의 실체가 어두운 열정의 에너지이고 그것은 때로 강한 원망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연민의 힘으로 또는 거부 의 힘으로 나타나는데 그 힘이 한결같이 이데올로기가 가하는 억압의 소산이라는 점을 주목한다. 하오백(「변경인의 탈변경」, 이문열, 『변경』 12, 문학과지성사, 1998)은 『변경』이 1960년대를 중심으로 한 역사소설이라는 점과, 이문열 자신의 개인 사적 맥락의 중추고리라는 두 가지 틀이 『변경』의 성격을 규정한다고 본다. 따라서 1960년대의 정치적·사회적 변화를 다루면서 『영웅시대』에 이어 가족사가 스며들고, 또한 이문열의 성장기와 함께 이문열 자신이 왜 작가가 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양신규(「이문열 소설의 ‘시대착오성’ 문제」, 『개신어문연구』 제15집, 개신어문학회, 1998)는 『변경』을 낭만적 충동과 교훈적 충동의 지배를 받는 소설이라고 말한다. 또한 이태동(「『변경』의 의미와 작가의 역할」, 『문학과사회』 1998년 겨울)는 『변경』의 의미를 등장인물들이 휴머니즘적 노력으로 이데올로기가 해체되어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강은혜(「한국

철이라는 세 인물의 삶에 나타난 정치적 원죄의식과 가문의식, 아버지 부재의식을 밝히는 데 주력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 연구가 집중한 대로 이명훈·이영희·이인철이 『변경』을 이끌어가는 주요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변경』의 저층에 흐르는 보다 근원적인 토대를 밝히는 데는 아무래도 역부족이다. 세 인물의 삶의 궤적을 추적하다 보면, 그 끝에는 어김없이 ‘황석현과 김시형의 논리’가 깔려 있다는 사실을 기존의 연구들은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황석현과 김시형이 펼치는 담론은 미국의 제국주의 논리와 소련의 제국주의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1960년대 현실을 바라보는 두 축이다. 이 시기는 6.25의 상흔과 산업화의 열망이 비정상적으로 결합하여 출세와 성장제일주의로 표출되었으며, 전쟁의 폐허 위에 경제 회생의 신화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미국 제국주의의 원조 경제에 의지할 수밖에 없던 때였다. 하지만 경제적 원조는 국민들의 의식마저도 무기력한 식민 의식에 빠져들게 하는 극심한 후유증을 낳고 말았다.⁴⁾ 『변경』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제국주의의 영향력이 인간 삶에 작용하는 양상을 황석현과 김시형이라는 서로 다른 두 방향에서 보여주고 있다. 정치 이데올로기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던 시절, 변경이라는 지정학적 특징은 이념에 의해 당대의 하층으로 밀려난 한 가족의 비극적 운명까지 규정하는 기호가 되어 버린다. 이념을 좇아 휴전선을 넘은 아버지로 인해 명훈 일가는 순식간에 엘리트의 삶을 박탈당하고 요시찰 집단으로 전락해 버린다.⁵⁾

영웅서사의 전통과 이문열의 『변경』(『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18집(7권 1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3)는 『변경』을 자아와 세계의 사이에 가로놓인 벽에 대해서 어떻게 응전하고 극복하여 자아의 세계에 대한 전망을 조명한다.

4) 19세기 제국주의의 전성기는 거의 완전할 정도로 끝났다. 즉 프랑스와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그 가장 화려한 제국 영토를 상실했고, 두 나라와 작은 나라들도 원천지 통치령을 포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 시대는 그 시대에 한정되는 정체성을 가졌다고 해도, 제국주의 시대라는 과거의 의미는 그 시대와 함께 완전히 소멸한 것이 아니라, 몇 억이라는 사람들의 현실 속에 들어가 공유된 기억이라는 형태로, 또한 문화와 이데올로기, 정책을 둘러싼 고도의 의견 충돌의 장으로서 지금도 여전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에드워드 W. 사이드 지음, 박홍규 옮김, 『문화와 제국주의』(문예출판사, 2005), 64쪽

5) 존 맥클라우드 지음, 박종성 외 편역, 『탈식민주의 길잡이』(한울아카데미, 2000), 41쪽 참조

하지만 명훈 일가는 타자의 위치로 전락한 현실을 긍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동일자 의식에 매달려 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들의 위치는 제국의 영토 안에 남겨진 타자, 즉 변경인일 뿐이다. 문제는 어떤 경로를 통해 식민의 삶을 수긍하느냐이다. 이때 ‘황석현과 김시형은 식민으로 나아가는 두 가지 경로’를 의미한다. 그것은 변경을 고착된 형태로 보고 일찌감치 지식을 매개로 동일자와 자신을 일치시키려는 김시형의 변경론이거나, 아니면 저항을 꿈꾸다가 끝내는 현실과 타협하고 마는 황석현의 혁명론이다. 『변경』의 인물들이 살아가는 모든 양상은 이 두 가지 논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작가가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이인철조차도 김시형의 논리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황석현과 김시형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은 곧 『변경』의 가장 중요한 틀을 잡는 일과 같다. 따라서 이 두 사람에 대한 논리를 중심으로 작품을 연구할 때, 개별 인물들의 삶과 이인철의 문학이 가지는 의미를 보다 선명하게 해명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변경』을 황석현과 김시형의 논리가 인물들의 삶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본고는 『변경』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산업화와 근대화로 서구를 모방하기에 여념이 없는 1960년대의 현실을 식민지 지배자와 피지배자와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식민 상황으로 파악한다. 오늘날 이러한 식민주의에 맞서 식민지인의 주체적인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다양한 반식민 의식을 총괄해서 탈식민주의라 부르고 있다. 미국의 영향력이 막강하던 시대, 여러 인물들이 변경이라는 식민적 현실과 마찰을 빚으며 자기 정체성을 모색해 가는 과정을 『변경』의 주된 흐름으로 본다면, 『변경』을 탈식민주의적으로 고찰할 근거는 충분하다. 그러나 『변경』에 대한 탈식민주의적 연구에서 본고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겉으로는 반(反)서구, 반(反)제국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국의 힘을 승인하고 그것을 불변의 진리처럼 수용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즉 식민주의가 사라져야 할 순간에 오히려 식민주의로 되돌아가게 만드는 미완의 기획으로서의 반식민 투쟁이 탈식민주의 입장에서 본 『변경』의 특징이다.

II. 혁명론, 제국주의 이항대립적 통치논리의 모방

황석현과 김시형은 이명훈이 미군부대 보일러맨으로 함께 일하면서 만난 직장 동료들이다. 동서양을 넘나들고 시대를 가리지 않는 박학, 그들의 내면에 꿈틀거리는 시대 의식은 실제로 작품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1960년대 격동기의 사회·정치적 맥락을 거시적인 시각으로 포착하여, 명훈 일가의 삶에 논리적 근거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존재는 『변경』 해석에 있어서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너를 정치적 허무주의자라고 몰아치지 않고 합리적인 개량주의자로 보아준다 해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싸늘한 눈길로 방관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충분히 성립된다. 비겁한 자여, 그대 이름은 방관자니라—식의 몰아치기가 아냐. 내가 말한 대로 지금 익어가고 있는 이 변혁의 기운이 기실은 의사 의식 또는 일시적인 집단 광기에 지나지 않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또한 지도자와 통치 방식의 교체에 불과하다 해도 지금의 움직임은 지속되고 성취되어야 해. 체제 자체는 그대로라 할지라도 자유당 정권이 지금까지 자행해 온 비리와 부패와 폭력이 추방될 수 있다면 그건 틀림없이 진보고 개량이야. 비록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얻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얻을 게 있다면 얻어두어야 하지 않겠어? … (중략) …”(3권, 202~203쪽)⁶⁾

황석현은 모든 관계를 지배와 종속이라는 이항 대립의 관계로 인식하며, 그 이항 대립의 진원지를 미국과 러시아라는 양대 이념의 종주국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미국과 러시아 중심의 국제적인 지배와 종속의 관계는 『변경』의 배경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인물들 사이의 모든 관계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이러한 이항 대립적 현실에 직면하여 “자유당 정권이 지금까지 자행해 온 비리와 부패와 폭력”의 현실에서 이를 추방하고 “정치적 진보”를 위해서는 결코 “싸늘한 눈길로 방관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황석현의 주장이다. 식민 상태에 직면한 저개발국 지식인의 책무는 당대 현실을 문제적 상황으로 규정하고, ‘민중 규합을 통한 급진적인 해결’을 모색하자는 것이 혁명론의 골격이다. ‘황석현의 혁명론’은 권력의 주체와 대상의 순서를 바꿀 뿐이지, 결국 지배

6) 이문열, 앞의 책, 이하 권수와 쪽수만 표시

와 종속의 질서를 용인한다는 점에서 이항 대립적 사고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이항 대립적 사고는 식민 지배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통치의 논리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월한 동일자가 열등한 타자를 억압하는 것을 절대적 진리처럼 고정화하는 식민 지배의 논리가 황석현에게는 혁명론으로 정립된 것이라면, 명훈과 영희의 삶에서는 폭력으로 현실화한다. 오랜 실패로 생존의 가능성이 봉쇄되어 버렸을 때, 권력을 욕망하는 자가 가장 쉽게 손을 잡는 것은 ‘폭력’이다.⁷⁾ 소매치기, 폭력배, 정치깡패의 하수인, 가짜 여론조사소 기자 등, 명훈은 폭력의 방식으로 기아와 생존의 위기를 넘긴다. 뿐만 아니라 모니카의 도움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명훈은 단순히 남성의 생리적 욕구를 배설하는 대상으로 여기며 그녀에게 육체적·정신적 학대를 퍼부음으로써 결국에는 모니카를 죽음으로 몰아간다. 폭력에서 생존의 가능성을 타진하기는 영희도 마찬가지다. 여러 남자를 거처며 매춘부로 전락한 영희가 부동산 재벌의 대열에 들기까지의 과정은 물질적 폭력의 수수(授受)⁸⁾ 그 자체이다. 자신을 몰락시킨 시대의 폭력을 영희는 파행적 자본주의의 극단이 될 1960년대 부동산 투기에 편승하여 자본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폭력으로 되갚아준다.⁹⁾ 그런데 우월/열등의 이항대립은 상상계적인 것이다. 무슨 절대적인 기준이 제3항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보다 더 낫다든지 상대보다 못하다는 평가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절대적 열등성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것이 식민지배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이항 대립의 마술이다. 따라서 그러나 열등함과 우월함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뒤집어 보려는 이들의 폭력은 황석현의 혁명론과 마

7) 권력의 궁극적인 본성은 폭력이다. 사람은 타인을 자신의 의지의 도구로 만들 때, 자신이 보다 사람답다고 느끼며 이것은 비할 수 없는 즐거움을 준다. 한나 아렌트 지음, 김정환 옮김, 『폭력의 세기』(이후, 1999), 62~64쪽 참조

8) 영희에게 출세는 궁극적으로 경제적 풍요를 의미하는 것이다. 월북자의 가족이라는 낙인은 경제적 궁핍으로 다가오고, 자신을 거쳐간 박원장·창현·정섭, 그리고 남편이 된 억만, 모든 남자들과의 관계는 반드시 돈이 중요한 매개요인으로 작용한다.

9) 명훈과 영희의 폭력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간다. 명훈은 주변계급이라는 의미를 능동적으로 갱신하는 반면, 영희는 천민자본주의의 방식을 통해 적극적으로 체제 내에 편입함으로써 주변계급을 탈출하고 중심의 가장 극심한 모순 속에 자리 잡는다. 정혜경, 「변경(邊境)을 벗어나는 몇 가지 방법」, 『세계의 문학』 91, 1999), 257쪽 참조

찬가지로 일시적으로 열등감에서 벗어나게 하는 효과는 있지만, 이항 대립이라는 식민지적 통치 방식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궁극적인 해결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¹⁰⁾

인철은 거기서 비로소 형을 통해 한 자유주의자로만 인상지어져 있는 황석현의 변절을 어렵듯이 예감했다. 한때 급진적인 민족주의 운동에 깊숙이 참여했던 그가 유력한 보수 일간지의 기자로 눌러앉은 자신을 어떻게 다독일 수 있었는지도. 빈정거리는 투가 섞여 있기는 했지만 어쩌면 그는 마지막으로 덧붙인 예측이 맞기를 진심으로 빌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 (중략) …

“그럼 우리의 길은 같은 제국화, 핵심화밖에 없다는 것이 되고— 그것은 결국 박정희 정권이 말하는 공업화, 선진화와 맞아떨어지는데…… 혹시 그거 정당성도 정통성도 없는 군사 정권이 보상의 목적으로 내세우는 경제 우선 이데올로기의 변형 아닐까요? 모르긴 해도 요즘 데모하는 애들에게는 꽤 배주의로 비판받기 십상이겠는데요.”(10권, 105~109쪽)

파농은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에서 제3항이 제거된 상황, 즉 상상계의 이항 대립에 머물러 있는 상황을 지적한 바 있다. 여기서 폭력은 상상계의 특징이기도 한데 제3항이 결여됨으로써 상대와 동일시하거나 내면화하는 것이 아니면, 폭력에 의한 다른 한쪽의 소멸이 그 해결책이기 때문이다. 파농은 이러한 폭력 속에서 백인이 되고 싶어 하는 흑인의 심리를 잘 분석하고 있다.¹¹⁾ 폭력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명훈과 영희의 태도도 백인 주인에 대해 적대감보다는 그들을 동일시의 대상으로 삼고 그들에게로 향하는 흑인 노예의 모습과 그리 다르지 않다. 그런 점에서는 황석현도 마찬가지이다. 변혁을 소리 높여 외치면서도 실제로 황석현에게 행동과 실천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

10) 제임슨은 이항 대립을 묶여 있는 변증법이라고 부른다. 제3항이 결여됨으로써 더 높은 차위에서의 해소가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항 대립에는 제3항, 즉 실재의 차원이 결여되어 있다.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에서는 현실을 변화시키는 동시에 자신을 변화시켜 궁정의 인간으로 만드는데, 이항 대립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대립 상황을 변화시킬 제3항이 보이지 않은 혹은 부재한 상태에서 서로에 대한 적대와 공격성 상대를 약으로 규정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다. 이경덕, 『탈식민주의와 마르크시즘』, 고부웅 외, 『탈식민주의 이론과 쟁점』(문학과지성사, 2003), 179~181쪽 참조

11) 이경덕, 앞의 글, 183쪽

다. 실천이 아닌 이론으로 하는 투쟁, 혁명이론 전도사로서만 만족하던 황석현이 유명 보수 일간지의 기자로 슬그머니 눌러앉은 것은 지배 권력에 대한 저항만큼이나 그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다. 따라서 황석현의 혁명론이 ‘주변의 핵심화’라는 논리로 변질되는 것은 ‘이항 대립적 사고’가 불러오는 당연한 귀결이다. 제국이 어느날 느닷없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부의 의도적인 노력을 통하여 중심의 지위를 승계하거나 대체한다는 황석현의 주장 속에 이항 대립적 성격이 잠복해 있다. 황석현이 말하는 주변의 “핵심화”, 혹은 “제국화”의 공식은 1960년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박정희 정권이 “공업화, 선진화”를 통해 ‘서구의 “제국”주의를 모방’하는 행태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이인철이 “황석현의 변질”을 “어렵듯이 예감”하는 지점은 바로 이 부분이다.

“실은 아직도 결정을 못 내렸어. 직업적인 혁명가로 계속 나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취직이란 형식으로 이 사회에 재편입할 건지.”(6권, 107쪽)

“일이 이렇게 되고 보면 김가 그 자식의 눈이 더 밝았다고 할 수밖에 없지. 맞아. 아메리카와 소비에트란 두 제국의 변경에 있는 우리에게서 제3의 길이란 없어. 이 제국에서의 이탈은 저 제국으로의 편입을 뜻할 뿐이야. 그 어떤 제국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우리만의 새로운 땅이란 애초부터 환상이었는지도 모르지. 이 제국이 아니면 저 제국의 양자택일만이 있었는지도 ……”(9권, 127~128쪽)

결국 인철의 예상대로 황석현은 자신의 급진적인 혁명론을 철회하고 그토록 경멸했던 김시형의 견해로 방향을 틀게 된다. 황석현은 민족 부르주아지의 도덕적 파산과 천민자본주의의 기승, 거기에다 민족주의를 외피로 걸친 민족독재 정권의 말로를 그대로 따라가게 된다. “이 제국 아니면 저 제국의 양자택일만이” 존재하며, “아메리카와 소비에트 두 제국의 변경에 있는 우리에게서 제3의 길이란 없어”라고 말하는 대목에서 황석현의 회심은 분명해진다. 이러한 황석현의 회심은 이명훈의 삶이 패배주의로 귀착되는 것으로 구체화된다. 이명훈은 자신의 삶이 뿌리뽑힌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뿌리가 없었다는 비관적 자각과 함께 상류사회를 향한 열망에 중지부를 찍는다. 다시 말해서 이명훈이 프롤레

타리아로 자신의 계급을 확정하게 된 밑바탕에는 현실을 지배와 종속의 이항 대립으로 파악하고, 저항의 위치에서 편입의 위치로 입장을 바꾼 황석현의 태도 변화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제 황석현과 이명훈은 그동안 경멸과 비난을 서슴지 않았던 ‘김시형의 변경론을 수궁’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분법적으로 세계를 파악하는 한, 폭력과 혁명으로 역전을 꿈꾸어도 여전히 우월과 열등의 구분은 존재한다는 점에서 황석현과 이명훈·이영희는 모두 저항이 통용될 수 없는 현실을 그대로 수락하는 한계에 빠져 있는 것이다.

Ⅲ. 변경론, 식민지 지식인의 자기 부정과 동일자 지향

황석현과 달리 김시형에게 민족과 이념은 가치판단의 기준이 아니다. 이분법적으로 이편과 저편을 경직되게 나누고 복수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황석현과 다르게 김시형의 의식은 민족과 국가를 초월하여 있다. 김시형에게 지배 이데올로기는 허위이고, 저항 이데올로기만이 진리라는 황석현 식의 이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김시형은 백인과 흑인,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 남성과 여성 모두를 엮어매는 지배와 예속의 틀에서 벗어나는 ‘보편주의를 지향’한다.

“야, 이젠 역사적 허무주의에다 지정학적 허무주의까지 곁들였군. 요컨대 우리는 혁명을 지켜낼 힘도 유리한 지리적 위치도 없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혁명은 불가능하다. 특히 이념 따위만으로는—그런 얘기야?”

“대강은. 만약 혁명이 가능하다면 어떤 형태로든 외세를 등에 업은 의사혁명(擬似革命)이거나 한층 개악(改惡)된 보수 세력 내지 반동 세력에게 기회를 줄 환상의 백일천하(百日天下) 정도겠지.”(3권, 226쪽)

“고맙다. 그 보답으로 나도 하나 충고하지. 지금의 분위기로 보아 순진한 자유민주주의적 개혁—부르주아 혁명이라 해도 될는지—까지는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억눌려 있던 욕구가 한번 분출하기 시작하면 그걸 제어하기는 불가능하다. 반드시 과격한 변혁의 욕구와 무분별한 민족주의가 이 사회를 휩쓸 것이다. 그때를 경계해라. 그제 저편 제국의 체제를 이 땅에 가져오는 것으로 결말이 나든, 극우 반동의 대두로 이편 제국이 배푼 체제를 더욱 공고한 것으로 만들든, 너희들 같은 이상주의자들이 설 땅은 없을 것이다. 가장 조악한 형태로 실현되고 있는 이 땅의 정치적 허무주의가 우리 세

대에게서 다시 답습되는 것은 정말로 보고 싶지 않다……”(3권, 204~205쪽)

김시형은 “우리는 혁명을 지켜낼 힘도 유리한 지리적 위치도 없”으며, 민족주의 “이념 따위만으로는” “근본적인 혁명은 불가능하다”고 황석현의 혁명론을 부정한다. 김시형은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혁명론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가를 경고한다. “과격한 변혁의 욕구와 무분별한 민족주의”는 민족의 내적인 연대의식을 이끌어내기 위해 외적으로 적대감과 폭력을 가중시키고,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또 다른 식민논리를 만들어낸다고 본다. 명목상의 해방을 이룬 민족이 새로운 식민 세력으로 자리잡으면서 다른 민족을 억압하고 통치하는 이항대립의 악순환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황석현의 혁명론은 필연적으로 식민주의 개념으로 계속 소통할 수밖에 없으며,¹²⁾ 따라서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황석현의 혁명론은 “정치적 허무주의”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치 제도나 이념에 대한 전망이 없다고 해서 내가 우리의 개선과 진보를 단념했다는 뜻은 아니야. 이거 좀 엉뚱한 고백이 되지만 우리의 상황이 개선되어야 하고 우리 사회도 진보돼야 하는 어떤 것이라고 믿기는 나도 마찬가지야. 그러나 내가 그 실현 수단으로 기대하는 것은 제도나 이념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야. … (중략) … 소비에트공화국 인민이 제정 러시아 백성보다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 틀림없어 보이는 것은 그 증진된 행복의 총량이 아직 적(赤)·백(白)의 싸움에서 죽은 수백만의 핏값에도 까마득하다는 점이지. 나는 그제 인간성의 고양에 대한 노력 없이 제도와 이념에만 사회의 개선과 진보를 맡긴 탓이라고 봐. 한마디로 말해, 나는 악한 자가 운용하는 좋은 제도나 이념의 나라보다는 훌륭한 인간이 운용하는 나쁜 제도나 이념의 나라가 더 희망적이라고 보고 있어. 따라서 항상 제도나 이념과 연관을 맺는 너희들의 이른바 그 전망에는 관심이 없는 거

12) 민족주의가 식민주의에 저항하고 민족을 통합하는 데에 주된 힘으로 작용했지만, 이는 민족 구성원이 지닌 다양성, 즉 성적·인종적·종교적·문화적 차이를 무시하고 억압함으로써만 가능하다는 점은 커다란 문제로 지적된다. 『변경』에서 식민에 저항하고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황석현의 행동을 보면 김시형에게 모욕과 경멸을 노골화하고, 자신의 견해를 강요하는 경우가 종종 볼 수 있다. 황석현의 사례가 증명하는 바와 같이 민족주의는 해방의 이념에서 억압의 도구로 사용되는 운영상의 한계를 갖고 있는 이념이다. 존 맥클라우드 지음, 앞의 책, 109쪽 참조

야.”(2권, 280쪽)

‘김시형의 변경론’은 한국의 분단과 전쟁이 미·소 냉전체제의 산물이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인식에서부터 출발한다. 두 개의 제국 사이에 낀 변경국가는 어디를 가도 제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변경론은 적대적 관계에서 거칠게 변혁을 피하기보다는 체제 내에서 사회를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점진적 입장’을 취한다. 김시형이 “실현 수단으로 기대하는 것은 제도나 이념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이다. “적(赤)과 백(白)의 싸움에서 죽은 수백만의 핏값”에만 “사회의 개선과 진보를 맡”기는 “제도와 이념”은 신뢰할 수가 없다고 한다. 모든 이데올로기가 제시하고 있는 전망의 실현 가능성이란 엄밀히 따지고 보면 기만에 불과한 것이다. “악한 자가 운용하는 좋은 제도나 이념의 나라보다는 훌륭한 인간이 운용하는 나쁜 제도나 이념의 나라가 더 희망적이라”는 김시형의 발언은 혁명론자들이 주장하는 ‘전망에 대한 극도의 불신’에서 나온 말이다. 그는 이 땅의 진보세력들이 내놓은 사이비 전망의 특징은 이념을 실현하려고 서두르는 데 있다고 비판하면서, 보다 중요한 것은 오랜 시간을 견디면서 기다리는 일이라고 충고한다.¹³⁾

“우리 체제는 미·소가 부여한 둘 중 하나의 선택일 뿐이다. 그리고 그 선택도 우리의 의지보다는 그들의 실세에 따라 결정된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외에 제3의 길은 없으며 논리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해도 현실적으로는 그들 두 제국의 협력에 의해 가장 비참한 결말에 이를 뿐이다. 역사적으로도 두 가지 제국 사이에 끼어 있던 변방 국가를 봐라. 둘 중 하나의 선택 외에 달리 생존에 성공한 나라가 있던가……”(2권, 294쪽)

“정말 질렸다. 실로 엄청난 변경이론(邊境理論)이구나. 로마 시민이 되는 것 외에는 구제받을 길이 전혀 없는…… 우리 민족에 대한 그 철저한 비판과 불신이 무섭다. 민중의 힘, 아니 인간의 진보 그 자체에 대한 네 불신은 차라리 증오라는 편이 옳겠다. 그 어떤 반인간적 논리보다 더 악랄한 인간 혐오야. 그만 하자. 그 모진 병이 내게도 옮을까봐 겁난다.”(3권, 226쪽)

13) 최종욱, 『시대와의 불화』, 강준만 외, 『레드 콤플렉스, 광기가 남긴 아홉 개의 초상』(삼인, 1997), 83~84쪽 참조

언뜻 보면 김시형의 변경론은 매우 심오하고 정확한 현실 판단에 근거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김시형의 논리는 점진적인 진보를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족에 대한 철저한 비판과 불신”이라고 보는 편이 더 타당하다. 황석현이 지적한 바와 같이 김시형의 논리대로라면 1960년대는 오로지 경제대국 미국의 열렬한 옹호자, 즉 “로마의 시민이 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전망도 기대할 수 없는 시대이다. 이러한 김시형의 변경론은 겔렌이 말한 후기 역사와 너무도 흡사하다. 겔렌은 세계는 자본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제3세계의 세 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하나의 체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자본주의 안에 지배와 그에 대한 저항인 사회주의가 있을 뿐이라고 말한다.¹⁴⁾ 겔렌이 말한 바와 같이 강요된 양자택일 외에 “제3의 길은 없”다고 하는 김시형의 이론은 1960년대 변경국가의 현재와 미래 모두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김시형의 미국 유학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변혁은 ‘오직 중심에서만 가능’하다는 변경론에 근거를 둔 것이다.

김시형이 늘상 말하는 것은 그 유학에서 이루어질 학문적인 성취나 정신적인 개안이 아니라, 미국 유학이 한국 사회에서 확보해주는 현실적인 이득만을 노리고 있는 듯해 마뜩하지 않아보였다. 이를테면 유학하려는 분야만도 대학에서의 전공이나 자신의 전혀 무관한, 한국에서의 최소가치만을 겨냥한 어떤 것이었다. … (중략) … 어떤 때 - 특히 그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비굴하리만치 다른 사람에게 몸을 굽히는 걸 보게 될 때는 ‘참 별종의 인간도 있구나……’ 싶을 때까지 있었다.(12권, 20~23)

미국 유학, 즉 학문으로 자신의 운명을 변혁하려는 김시형의 모습에서 ‘식민지 지식인의 철저한 자기 부정과 강렬한 동일자 지향성’을 엿볼 수 있다. 김시형은 “유학에서 이루어질 학문적인 성취”보다 “미국 유학이 한국 사회에서 확

14) 겔렌은 현대를 더 이상 새로운 것이 불가능한 시대로 규정한다. 그에 따르면 인류는 이미 현존하고 있는 거대한 기본이념들, 즉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로부터 변형된 형태의 여러 이념들을 추종하는 데 그칠 것이다. 따라서 개발도상국가의 국민들이 어떤 긍정적인 제3의 이데올로기도 만들어 낼 수 없다고 한다. 인류에게 주어진 길을 자본주의 아니면 사회주의라는 양자택일만이 있을 뿐이다. 정치 영역에서만 아니라 다른 모든 영역에서도 양자택일의 가능성은 이미 기존의 가능성을 넘어서 수 없다는 것이 겔렌의 주된 논리이다. 최종욱, 앞의 글, 95~97쪽 참조

보해주는 현실적인 이득”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는 1960년대 미국의 원조국가의 국민, 고아와 다름없는 비참한 처지에 열등의식을 느끼는 식민지인이 운명을 뒤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식민 모국의 지식인으로 되는 길뿐이라고 생각한다. 식민 모국의 문명화된 이상을 품음으로써 식민지적 열등감으로부터 탈피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프란츠 파농은 제국주의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식민지인들이 아무리 미국사람처럼 행동¹⁵⁾하려고 해도 그것은 그저 가면을 쓰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피식민지인이 교육을 통해 문명이라는 하얀 가면을 쓰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그들은 결코 지배자와 동등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¹⁶⁾ 오히려 김시형과 같은 식민지 지식인들은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고, 식민 모국의 문명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데 기여할 뿐이다. 진정한 식민주의를 극복한다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지배적인 방식을 전복시키고, 식민주의자의 가치관을 복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현실을 재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변경을 고정된 것으로 보고 지식으로 지배 권력에 편입되기를 꿈

15) 이문열이 현란스러울 정도로 다양한 소재를 다루고 있으면서도 정작 소외 계층이나 시대의 모순에 맞서 싸우는 인물은 단 한 번도 정면에서 다루지 않았고, 그런 인물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정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지적(최종욱, 앞의 글, 78쪽 참조)은 이러한 강렬한 제국 지향성과 관련이 있다. 김시형의 변경론에서 증명된 바와 같이 『변경』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제국에 대해 매우 우호적이라는 사실이다. 이 작품을 면밀히 읽어 보면 변경인들은 언제나 부정적으로 그려지며, 반대로 제국주의 미국인들은 매우 긍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폭력으로 목숨을 이어가는 명훈, 매춘과 땅투기로 졸부의 대열에 들어선 영희, 여기에 논리적 근거를 대고 있는 황석현은 매우 부정적으로 그려진다. 반면에 제국주의 미국인들은 매우 긍정적으로 그려진다. 이들은 언제나 품위있고 너그러우며, 무엇보다도 곤경에 빠진 변경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구세주로 등장한다. 버터워스 소령은 미군부대 하우스 걸의 고된 노동으로부터 경애를 해방시켜 미국으로 데려가 신데렐라의 꿈을 이루어준다. 김시형을 미국 유학까지 시켜 어엿한 대학교수까지 만들어준 톰슨 대령도 휴머니스트라는 점에서는 같다. 이들 미국인에게 민족과 이념은 가치판단의 기준이 아니다. 민족과 국가를 초월하여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그들의 모습은 매우 아름답게 묘사된다. 오히려 이편과 저편을 경직되게 나누고 복수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황석현과 명훈, 그리고 영희야말로 부정적인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이다.

16) 프란츠 파농, 『검은 피부 하얀 가면』(인간사랑, 1998), 23쪽 참조, 존 맥클라우드 지음, 박종성 외 편역 『탈식민주의의 길잡이』(한울, 2003), 39~41쪽 참조

꾸었던 김시형의 변경론은 중심과 변경, 지배와 종속의 구도를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확장하는 ‘식민주의적 발상’이며, ‘역사적 허무주의의 소산’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된다.

어쩌면 명훈의 그 같은 변화는 도시 빈민과의 동일시(同一視)에서 비롯된 자기 정체성(自己正體性)의 확인이 그 원인일지도 모르겠다. 명훈 자신의 규정대로라면 오래 ‘떠돌던 자’가 드디어 자신이 있을 자리를 찾았다고 믿는 순간의 자포자기적 열정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마르크스식(式)으로 표현한다면, 이 아시아적 전체 국가의 폐허 위에서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는 데 실패한 봉건 지주의 후예로 오래 주변 계급으로 떠돌다가, 그제서야 겨우 기본 계급으로 스스로를 편입시킨 자가 몸으로 외친 출발의 노래일 수도 있다.(12권, 153쪽)

광주대단지로 옮겨간 이명훈의 삶에서 김시형의 허무주의는 선명하게 드러난다. 중심을 향한 이명훈의 절망적인 몸부림 뒤에 남는 것은 결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도시빈민이라는 꼬리표뿐이었다.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겠다는 돌내골의 개간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 이명훈은 자신의 욕망에 대해 극심하게 회의하기 시작한다. 이탈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 식민지 현실을 속수무책으로 수락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부터 이명훈의 삶은 황석현의 논리로부터 멀어지면서 서서히 김시형의 이론에 근접해간다. 이명훈이 뒤늦게 깨달은 것은 “도시 빈민과의 동일시에서 비롯된 자기 정체성(自己正體性)의 확인”, 즉 변경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인이다. 그러나 이러한 확인은 김시형과 마찬가지로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라, “오래 ‘떠돌던 자’가” 저항의지를 상실하고 피지배자의 위치에서 “드디어 자신이 있을 자리를 찾았다고 믿는” 비관적 체념에 불과하다. 이제 이명훈은 더 이상 정권이 자신들을 호명하는 방식에 저항할 의지를 잃고, “도시 빈민”, 또는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는 데 실패한 봉건지주의 후예”라는 사실을 수긍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수긍하는 순간 명훈은 비참하게 죽고 만다. 이명훈의 삶은 이렇게 실패에서 시작하여 실패로 끝을 맺는다. 실패의 처음에는 황석현의 혁명론이 뒤를 대고 있으며, 마지막은 김시형의 변경론이 대기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제국에 대한 공격에서 시작된 ‘황석현의 대항적 탈식민주의’와 제국의 힘에 복무하는 ‘김시형의 공모적 탈식민주의’가 이명훈의

처음과 끝을 이룬다는 것이다.¹⁷⁾ 그런 점에서 이명훈의 죽음은 혁명론과 변경론이라는 ‘두 이데올로기 모두의 실패’를 뜻하는 것이다. 이제 『변경』은 황석현과 김시형의 논리에 대한 대안, 즉 새로운 극복의 논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IV. 주변부 문학, 포괄적이고 경계가 없는 지배 권력

사이드는 지배자의 정체성은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피지배자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말한다. 상상 속에서 지배자는 어떠한 저항으로도 무너지지 않는 완벽한 권능의 속성을 부여받는다. 상상의 힘이 공포스러운 것은 일단 이러한 상상에 맡겨들면 그것이 고정불변의 현실로 인식된다는 것이다.¹⁸⁾ 김시형의 한계도 여기서 그리 멀지 않다. 제국주의를 과다하게 상상함으로써 변경의 현실을 고정불변의 진리로 여기게 된다는 점이다.

-
- 17) 대항적 탈식민주의와 공모적 탈식민주의는 미쉬라와 하위가 『되받아 쓰는 제국』을 비판하면서 나온 용어이다. 백인 식민지에서의 진정한 탈식민주의는 제3세계의 반식민 저항 운동을 계승한 대항적 탈식민주의가 되어야 하는데, 『되받아 쓰는 제국』에서 보여주고 있는 탈식민주의는 중심부의 본질주의와 보편주의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는 척하면서 주변부의 문화를 교묘하게 배제하는 한계를 보여준다고 말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이 서구 근대성의 자기 반성을 위한 서구 중심적 기획이었던 것처럼, 탈식민주의를 포스트모더니즘의 우산 아래 두려는 것 역시 또 하나의 서구 중심적 기획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탈식민주의를 서구의 비평 영토로 복속시키고, 1세계의 문화제국주의에 복무하는 탈식민주의적 경향을 공모적 탈식민주의라고 말한다. 이경원, 「탈식민주의의 계보와 정체성」, 고부응 외, 앞의 책, 52쪽 참조
- 18) 『변경』에 아버지를 추적하는 공안요원들이 작품에 두 번 출현한 적은 있으나 지배자의 모습이 직접적으로 노출된 적은 없다. 하지만 이들이 인물들의 삶에 행사하는 영향력은 말할 수 없이 큰 것이다. 보이지 않는 지배자가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상상을 통해서일 것이다. 명훈네 일가족은 언제나 자신들을 따라다니는 감시의 눈초리를 의식해야 했으며, 이것은 직장과 일상 생활에서의 사소한 선택에까지 영향을 미치곤 하였다. 이인철은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명혜라는 존재를 의식하면서 자신을 추스르곤 한다. 사실 보이는 권력보다 보이지 않는 권력이 더 무서울 수 있다. 보이지 않는 권력을 상상을 통해서 그 힘이 증폭되기 때문이다.

“나도 김 교수한테 그 얘기 들었어. 그 사람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부터. 그런데 나는 그걸 변경 의식이라고 하지. 실은 변경이란 말 자체가 열등감과 자의식에 찬 자기 규정(自己規定)일 수도 있어. 아직 내가 미국을 잘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김교수가 말하는 그런 전능(全能)하고 전지(全知)한 제국을 솔직히 나는 보지 못했어. 변경이 변경인 것은 제국의 위대함 때문이 아니라 변경이 스스로를 그렇게 규정하기 때문이라고 봐. 방금 내가 말한 그 원죄 의식이란 것은 바로 그런 변경 의식 중에서도 가장 조악한 자기규정일지도 모르고.” … (중략) …

“또 제국의 신민 같은 발상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게 이상해. 왜 그런 불합리와 부조리가 있으면 그것에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오히려 그 불가피성(不可避性)의 논리를 끼워 맞추지? 내가 보기에 이 땅이 변경의 불행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그런 변경 의식의 극복에서 시작될 거야.”(11권, 236~237쪽)

이러한 상상의 권력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경애이다. 미국을 자신의 조국으로 여기는 친미적 인물인 경애가 미국의 실체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동양이 하나의 실체로 존재하지 못하고 서양인의 오만과 편견이 투사되어 부정적인 이미지로 존재하는 것처럼,¹⁹⁾ 변경인의 의식 속에 존재하는 미국도 하나의 실체가 아니라 변경인의 “열등감과 자의식에 찬 자기규정(自己規定)”에 의해 거대하게 부풀려진 환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경애의 논리는 사이드의 동양론과 거꾸로 세워놓은 것과 같다. 미국에서 오래 살면서 보고 느낀 미국의 실체는 변경인들의 생각만큼 “전능(全能)하고 전지(全知)한 제국”이 아니다. 제국주의 미국의 힘이 거대하게 부풀려진 것은 변경인의 상상 때문이며, 이것이야말로 변경인의 “제국의 신민 같은 발상”이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경애는 변경인의 의식 속에 자리잡고 있는 ‘미국의 힘이 허구와 가상’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경애는 허구의 힘에 대하여 식민 현실의 “불가피성(不可避性)의 논리를 끼워 맞추”는 김시형의 “변경 의식”을 납득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이 땅이 변경의 불행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상상의 힘에 구속된 변경의 “불합리와 부조리”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며, 그렇게 될 수 있을 때 “변경 의식의 극복”은 가능하다

19) 김성곤, 「에드워드 사이드의 『시작』과 『오리엔탈리즘』」, 『외국문학』, 1984 겨울, 228쪽

는 주장한다. 이러한 처방은 지금까지 절대적 진리로 알려져 온 전통적 통념에 문제를 제기하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분명 김시형의 비판적 변경론을 넘어선 것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논리의 깊이에도 불구하고 경애의 제안은 미국을 자신의 모국으로 인식함으로써 실천이 따르지 않는 말 그대로 제안에 불과한 셈이 되고 말았다.²⁰⁾

“실은 내가 말한 것은 모두 전부터 지적받아온 것이고 나도 아직은 인식틀로만 유효한 변경론을 보다 활용도가 높은 실천틀로 전환시키는 걸 과제로 삼고 있다.”(11권, 241쪽)

이제 경애도 극복하지 못한 김시형의 한계, 즉 “인식틀로만 유효한 변경론을 보다 활용도가 높은 실천틀로 전환시”켜야 하는 “과제”는 이인철의 몫으로 남는다. 이인철은 존재하지도 않는 제국의 정신, 그 지배자의 상상계적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간 자신의 일가족을 묶어놓았던 원죄 의식과 변경 의식에서 놓여나고자 한다. 여기서 이인철이 변경 극복의 수단으로 문학을 지목하는 것은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²¹⁾

그런데 문학을 접하게 되면서 나는 곧 그 문학에 주변 계급적 요소가 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다만 그때는 문학을 계급적으로 분류하기를 거부했을

20) 자신을 과대 포장하고 가공해내는 능력에 있어서 경애를 따라갈 만한 인물은 찾아보기 어렵다. 사업가였던 아버지의 몰락과 자살, 어머니의 가출, 불량스런 남동생, 망령난 할머니, 경애는 현실의 고통을 몰락한 왕족의 고뇌로 조작해낸다. 따라서 변경인의 상상 속에서 부풀려진 제국주의에 저항해야 한다는 경애의 신선한 발상은 발상에 그치고 마는 것이다.

21) 그간 이씨 일가족에게 문학은 제도권 교육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인철이 천신만고 끝에 들어간 명문대학교의 국문과는 문학이 아닌 다른 커리큘럼으로 채워져 있었고, 문학은 비주류 학생들의 불온서클에서나 만날 수 있는 것이었다. 이인철의 눈에 비친 대학은 의식 있는 지식인을 양성하기 보다는 김시형 교수처럼 나약하고 숙명적인 변경의식을 유포하는 기관에 불과했다. 대학의 실상을 깨달은 순간부터 제도권 교육과 문학은 대립적 관계로 변모한다. 제도권 교육은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데 일정한 몫을 하고 있었고, 문학은 중심으로부터 소외된 자들을 규합하는 구심점이 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인철이 대학을 버리고 문학을 택하는 데에는 현실 저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다.

뿐입니다. 처음 사랑에 빠진 자의 맹목과 거기서 비롯된 도저한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문학이 계급적으로 분류되는 것을 승인합니다. 나는 그 문학으로 주변 계급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저 쉽게 미치고 절망하고 잔인해지는, 그래서 일쑤 끔찍한 리바이어던을 만들어내는 두 기본 계급 사이에 위엄 있게 머물러 그 욕망을 조절하고 이해를 조화시켜보겠습니다. 세계 그럴 힘이 있는지 모르지만 문학이 그런 것이라면 한 남자로서도 꿈꾸어볼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12권, 227쪽)

이인철은 황석현과 김시형이 변경국가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바로 그 제3의 길을 문학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이항 대립적 가치관에서는 지배와 피지배를 전복시키는 폭력과 혁명이 강조되지만, 제3항적 사고에서는 지배와 피지배를 발생시킨 체제 자체를 문제 삼는다. 인철은 문학을 통해 “끔찍한 리바이어던을 만들어내는 두 기본 계급 사이”, 즉 “주변 계급”에 머물러 그 이항 대립의 격렬한 대립과 투쟁을 종식시켜 보고자 한다. 주변부 문학이 가진 제3항적 인식은 이해로 분열된 두 집단을 묶어세우고, 현실을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변경 극복의 가능성을 보여줄 듯했다.²²⁾ 그러나 아쉽게도 이후 인철의 행보는 이러한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나아간다. 오리엔탈리즘적 타자의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인철의 모습은 작품 곳곳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이 학교는 내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나는 다시 떠나겠다. 지금까지와 다르게 새로 시작해보고 싶다. 다시 한 번 ‘권력에의 의지’를 불붙여야겠다.(11권, 227쪽)

그 근거로 이인철이 언어에 매료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말은 본질적으로 집합명사이며, 언어 속에는 이데올로기의 작용이 농축되어 있다. 언어 속에 권력 작용의 침투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은 비단 그림자만은 아니다.²³⁾ 이인철은 자신이 비록 사법고시에는 실패했지만, 언어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

22) 이경덕, 앞의 글, 185~186쪽 참조

23) 미우라 노부타카·가스야 게이스케 엮음, 이연숙 외 옮김, 『언어 제국주의란 무엇인가』(돌베개, 2005), 373~378쪽 참조

과 논리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살아갈 큰 힘을 갖고 있음을 강조하곤 한다. 주변부 문학을 통한 제3의 길을 말하는 이인철의 정신은 여전히 학문과 정신의 사람들이 사회 상층부를 차지한다는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 단지 그 추구의 방식이 제도권 교육에서 문학이라는 형태로 달라진 것뿐이다. 사이드는 인문학을 통해 순수한 지식 혹은 사심 없는 지식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전통적 자유주의의 입장을 거부하며, 오히려 인문학의 실천이 권력 작용과 깊이 연루되어 있음을 말한다. 모든 예술과 학문은 역사와 문화의 단계를 지나 지배 이데올로기라는 최종 심급에 결정된다는 것이다.²⁴⁾ 그런 점에서 이인철은 변경의식을 극복한 것이 아니라, ‘변경의식이 주변부 문학이라는 형태로 변형’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권력에의 의지”를 불 붙여야겠다”는 이인철의 말을 통해 볼 때, 주변부 문학을 두고 권력에 대한 저항으로 보거나,²⁵⁾ 변경을 극복할 대안으로 보기는 어렵다. 문학을 매개로 동일자와 자신을 일치시키려는 이인철의 태도는 결국 지식을 매개로 권력에 근접하려는 김지형의 한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셈이 된다. 이인철의 이러한 한계는 동생 옥경과의 대화에서 보다 선명하게 드러난다.

“오빠, 그것도 이상한 말이네. 공순이가 공순이 정신을 가져야지, 그럼 공주 정신이라두 가지라는 거야? 그게 뭐야? 공주도 아닌 게 공주처럼 구는 거. 현실을 아예 무시하란 말인데, 그래서 뭐가 된다는 거야”

“그런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고귀한 지향(志向)을 가진다는 뜻이야. 고개를 땅에다 처박고 있으면 먹이밖에 찾지 않게 돼.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자신을 묶어두지 말고 보다 높은 곳을 바라봐.”

“그래서 큰오빠나 언니처럼 되란 말이지. 꿈만 거창해서 몸은 한층 더 진창을 구르게 되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래. 아무리 초라해도 이 현실에서 발바닥을 떼지 않을 거야.”(11권, 83쪽)

24) 바트 무어-길버트 지음, 이경원 옮김, 『탈식민주의! 저항에서 유희로』(한길사, 2001), 113~115쪽

25) 김주연은 인철이 선택한 문학은 돈과 권력과, 이데올로기의 비극으로부터 구원해줄 가능성을 문학에서 찾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영희와 같은 세속적 출세 방식과는 다른 문학에서 인철이 구원을 발견하였으며, 따라서 사 남매 중 유일하게 인철만이 승리자의 반열에 들어있다고 말한다. 김주연, 『아버지 상징, 그 파괴의 서사적 힘』(이문열, 『변경』 12권, 문학과지성사, 1998), 238~240쪽을 보라.

『변경』에서 계급적 정체성이 선명한 사람은 이옥경뿐이다. 이옥경은 그의 애인 지식과 함께 노동자라는 계급적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잘못된 사회 구조에 투쟁하는 인물이다.²⁶⁾ 그런데 김시형의 변경론이 가진 비관성을 명쾌하게 짚어내며 탈중심과 실천을 강조했던 인철이 뜻밖에 옥경에게는 “보다 높은 곳을 바라” 보라고 하면서 “고귀한 지향(志向)”을 강요하는 모습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그것은 주변부 문학이 주변을 옹호하지 않고, 오히려 상층 권력을 지향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변경』의 평자들이 이인철의 문학을 둘러싸고 오해를 빚는 부분이 바로 여기다. 학교를 떠난 이인철의 행로를 탈중심이라고 하는 기존의 견해들은 일면 타당하다. 그러나 이인철은 제도권 교육이라는 중심으로부터 문학을 통해 상층부를 향한 재기를 다지고 있다는 점에서 탈중심이 곧바로 주변부 지향으로 연결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노동쟁의를 모색하는 동생 이옥경에게 “고개를 땅에다 처박고 있으면 먹이밖에 찾지 않게 돼.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자신을 묶어두지 말”라고 말하는 대목에서 이인철의 주변부 문학이 위치한 제3의 입장의 정체가 보다 선명해진다. 변경이라는 비극의 공간에 제한되어서는 안 되며 문학이라는 “고귀한 지향”을 꿈꾸어야 한다는 탈영토적인 입장이 인철이 말하는 주변부 문학의 제3의 위치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인철의 문학은 ‘탈중심화되고 탈영토화하는 권력 장치’로서, 유달리 돌내골의 땅에 집착해서 이씨 가문의 재건을 꿈꾸었던 이명훈의 권력 개념과는 좋은 대조를 이룬다. 영토적인 권력 중심을 만들지 않고, 고정된 경계나 장벽들에 의지하지도 않는 새로운 권력 개념, 어느 곳에서나 접근 가능한 ‘포괄적이고 경계가 없는 지배 권력’, 그것이 이인철이 말하는 주변부 문학이며 제3

26) 이옥경은 명훈·영희·인철이 상층부와 하층부에서 방황하는 양가적 인물이라는 특성을 전혀 물려받지 않은 인물이다. 옥경이는 『변경』 1부부터 꾸준히 등장하고는 있지만, 작품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보잘것없다. 작가가 명훈·영희와 달리 옥경에게는 특별한 개성을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종일관 보조자의 위치에 머물러 있었다. 그런데 여태껏 정신적 유아로만 그려졌던 옥경이가 회사측의 노동력 착취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은 의외의 일이다. 그리고 보면 옥경은 어머니의 보호 아래에서 자랐으면서도 명훈이나 영희와는 다른 이력을 갖고 있었음이 눈에 띈다. 노동자 계층에서 자신의 소속을 찾고 선명한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태도는 사남매 중 가장 안정감 있는 모습이다. 권유리아, 『이문열, 『변경』에 나타난 양가성 연구』(『현대소설연구』 29호, 2006), 358쪽

의 입장인 것이다.²⁷⁾ 이인철의 문학이 이렇게 권력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인철은 두 강대국을 비판할 수 있는 문학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보면 <변경>의 인물들은 황석현의 혁명론으로부터 출발하여 김시형의 변경론으로 귀착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변경>이 보다 공을 들이는 부분은 황석현보다는 김시형 쪽이라 할 수 있다. 점진적인 개혁 의지는 있으나 관념에 머물다가 끝내는 지배자의 통치방식을 그대로 용인하는 김시형의 방식은 이인철 문학의 형태로 변형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변경』에서 식민 의식의 극복은 이인철의 문학에 도달한 마지막까지 ‘미완의 과제’로 남겨진 셈이 되고 말았다.

V. 결론 - 미완의 기획으로서의 탈식민투쟁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역사의 종말』에서 모든 시대 모든 민족의 경험을 되돌아볼 때 진보로서의 역사는 끝났다고 말한다. 헤겔도 마르크스도 인간 사회의 진화는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를 채우는 사회 형태가 출현했을 때, 종말을 고할 것이라고 미래를 비관적으로 진단한다. 물론 두 사람은 역사의 종말을 하나의 사실로서 인정했지만, 헤겔이 그것을 자유주의 국가라고 생각했던 것에 반해, 마르크스의 그것은 사회주의 사회라는 차이만이 있을 뿐이다.²⁸⁾ 사회주의든 자유주의든 세계의 다양한 썩을 잘라버리고 하나의 질서만을 강요하는 제국주의 논리라는 점에서는 같다는 것이다. 그간 제국주의는 모든 행복과 번영을 향한 인류의 열망을 비관으로 대체해 왔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조차 결과적으로 사회의 진보에 기여한다는 지배자들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 전쟁으로 죽어간 숭한 병사들은 단지 헛되이 자신의 피를 흘렸

27) 이명훈의 영토화하고 중심화된 권력 개념과 이인철의 탈영토화하고 탈중심화한 권력 개념은 제국주의와 제국주의로의 이행기의 한 특징으로 살펴볼 근거를 갖는다. 물론 이러한 연구는 한국에서 1970년대가 근대적 주권의 황혼기인가에 대하여는 정밀한 고찰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지음, 윤수중 옮김, 『제국』(이학사, 2001), 17쪽 참조

28) 프랜시스 후쿠야마, 이상훈 옮김, 『역사의 종말』(한마음사, 1992), 493쪽 참조

을 뿐이다.

이러한 역사적 비판주의의 대열에서 『변경』을 발견할 수 있다. 이문열의 대하소설 『변경』은 제국주의 시대, 지배 권력의 폭압에 대항하는 국면을 지나, ‘문학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권력을 창출하는 양상’으로 변모해 가는 과정을 황석현에서 김시형으로 옮겨가면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대항이든, 창출이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의 중심만을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것이다. 하나의 로마 이외의 나머지 모든 것은 억압되어야 한다는 의식 속에는 ‘역사에 대한 비판주의’가 도사리고 있다. 다시 말해서 『변경』은 지배와 종속의 질서, 완강한 제국주의 논리에 대한 저항 포기 선언으로 읽힌다. 황석현과 김시형의 차이는 다만 어떤 색깔의 백기를 들고 나서야 하는가 하는 것뿐이다.

따라서 『변경』이 인철의 문학관을 좀더 능동적인 역사 해석의 차원으로까지 끌어올리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변경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선택이 아닌 운명의 강요라 할지라도, 문학을 저항의 근거지로 삼아 제국의 논리에 균열을 내고, 자신과 가족을 옹아뒀던 이념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터이다. 인철의 문학이 상층 엘리트 집단의 이데올로기를 대변하던 문학으로 지배집단의 빈틈을 공격하는 전초기지가 되었다라면 『변경』에 대한 평가는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다라면 가장 강력한 반대와 가장 생산적인 대안들은 낡은 것의 껍질 안에서 생겨나며, 진정한 반역은 변경에서 자란다는 말이 단순한 비유로 머물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인철이 문학을 새로운 중심으로 설정해 놓고, 그리로 치열하게 달려가는 모습은 ‘낙관의 형태를 띤 비판’이다. 문학을 통해 새로운 중심에 다가설 수 있다는 낙관이며, 지배와 종속의 낡은 논리로부터 영원히 탈출하지 못한다는 데 대한 비판이다. 제국주의는 외부를 가지지 않는다. 어떤 형태로든 끊임없이 확장일로에 있는 제국주의 시대, 『변경』은 그 제국의 변경을 살아가는 인간의 역사와 미래에 대한 비판적 보고서이다.

물론 이러한 비판은 1960년대의 현실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더 이상 확장되는 국경도 없고 새로운 정착지를 세우는 흥분은 없지만, 이제 제국주의는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특정 영토가 아니라, 문화의 이름으로 아예 지구를 통째로 영토화한 지 오래이다. 탈식민주의의 이름으로 제국주의에 맞서지만, 여전히

변경인의 정신과 문화는 서구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국주의와 변경은 이제는 불변의 진리처럼 되어 버렸다. 그런 점에서 『변경』은 1960년만이 아니라, 하나의 중심과 무수히 많은 변경으로 이루어진 지구촌 시대의 암울한 현재와 미래에 대한 암시라 할 수 있다. 대하소설 『변경』이 가지는 의미는 여기에 있다.

주제어 : 탈식민주의, 혁명론, 이항대립, 폭력, 주변의 핵심화, 변경론, 허무주의, 주변부 문학, 식민의식의 극복

참고문헌

- 강은혜, 「한국 영웅서사의 전통과 이문열의 『변경』」,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18집, 2003, 83~112쪽
- 고부응, 『초민족시대의 민족 정체성』, 문학과지성사, 2002, 1~314쪽
- 권유룡, 「『변경』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문학과사회』, 1998 겨울, 1244~1263
- 권유리아, 「이문열 『변경』에 나타난 양가성 연구」, 『현대문학연구』 29호, 2006, 349~367쪽
- 김성곤, 「에드워드 사이드의 『시작』과 『오리엔탈리즘』」, 『외국문학』, 1984 겨울, 217~235쪽
- 김주연, 「분단현실과 아버지 콤플렉스」, 『동서문학』 233호, 1996, 350~364쪽
- _____, 「아버지 상징, 그 파괴의 서사적 힘」, 『변경』 12, 문학과지성사, 1998, 234~265쪽
- 양성규, 「이문열 소설의 ‘시대착오성’ 문제」, 개신어문학회, 『개신어문연구』 15집, 1998, 687~717쪽
- 이경덕, 「탈식민주의와 마르크시즘」, 고부응 외, 『탈식민주의 이론과 쟁점』, 문학과지성사, 2003, 170~187쪽
- 이경원, 「프란츠 파농과 ‘민족’의 정치학」, 『비평과 이론』 제9권 2호, 2004 가을·겨울, 37~67쪽
- _____, 「탈식민주의론의 탈역사성」, 『실천문학』 1998 여름, 257~284쪽
- _____, 「탈식민주의의 계보와 정체성」, 고부응 외, 『탈식민주의 이론과 쟁점』, 문학과지성사, 2003, 23~58쪽
- 이문열, 『변경』 1~12, 문학과지성사, 1998
- 이문열·정혜경 대담, 「문 밖에 선 자의 탈출을 위하여」, 『문학과사회』, 1998 겨울, 1264~1274쪽
- 이태동, 「『변경』의 의미와 작가의 역할」, 『문학과사회』 48, 1999, 1723~1740쪽
- 정미애, 「근대화이론의 극복으로서의 세계체제론과 종속이론」, 효성여자대학교, 『효성사회학』 제2집, 1985, 55~74쪽
- 정혜경, 「변경(邊境)을 벗어나는 몇 가지 방법」, 『세계의 문학』 91, 1999, 245~

258쪽

최종욱, 『시대와의 불화』, 강준만 외, 『레드 콤플렉스, 광기가 남긴 아홉 개의 초상』, 삼인 1997, 73~107쪽

하응백, 『변경인의 탈변경』, 이문열, 『변경』 12, 1998, 266~288쪽

허상문, 『문학과 이데올로기 : 테리 이글턴의 비평이론』, 『영미어문학』 제67호, 2003, 149~164쪽

데이비드 하비 지음, 최병두 옮김, 『신제국주의』, 한울아카데미, 2005, 1~236쪽
미우라 노부타카·가스야 게이스케 엮음, 이연숙 외 옮김, 『언어 제국주의란 무엇인가』, 돌베개, 2005, 1~570쪽

바트 무어-길버트 지음, 이경원 옮김, 『탈식민주의! 저항에서 유희로』, 한길사, 2001, 1~466쪽

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지음, 윤수중 옮김, 『제국』, 이학사, 2001, 1~589쪽

에드워드 W. 사이드 지음, 박홍규 옮김, 『문화와 제국주의』, 문예출판사, 2005, 1~663쪽

_____,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2005, 1~716쪽

존 맥클라우드 지음, 박종성 외 편역, 『탈식민주의 길잡이』, 한울아카데미, 2000, 1~252쪽

프란츠 파농, 『검은 피부 하얀 가면』, 인간사랑, 1998, 1~293쪽

프랜시스 후쿠야마, 이상훈 옮김, 『역사의 종말』, 한마음사, 1992, 1~510쪽

한나 아렌트 지음, 김정환 옮김, 『폭력의 세기』, 이후, 2000, 1~158쪽

<Abstract>

The Analysis of Characters of 『The Border』 by Lee Moon-yeol

Kwon, Yu-Ri-Ya

The saga novel 『The Border』 by Lee Moon-yeol describes the process of change from imperialism age, the phase of counteract against the oppression of the ruling power, to the phase of creating a new form of power through the literature as transferring from Whang Sok-hyun to Kim Shi-hyung. Whether it is counteract or creation, whichever case it takes, it is the same in the point that it recognizes just one center. Pessimism toward the history exists in the consciousness in which everything except Rome should be oppressed. In other words, 『The Border』 can be read as the declaration of resignation of resistance against the order of control and subordination and the stubborn logic of imperialism.

Therefore, I feel the lack of which 『The Border』 has not developed the viewpoint of literature of In-chul up to the point of more active interpretation of history. It would be the best choice to crack the logic of the empire and to escape from the bridle of the logic which had restrained his family even though to live as an outsider is not the choice but the insistence of his fate. If the literature of In-chul would have been the advance base to attack the blind side of the power as the spokesperson of the ideology of the upper elite, the evaluation of 『The Border』 would had been much different. If it have been, it would not had remained just a mere metaphor that the most strong oppression and the most productive alternatives come from the inner shell of the old. So it is the pessimism of the form of optimism that In-chul has set the literature as the new center and run for it

fiercely. It is optimism that he think it possible to approach to the new center through the literature, while it is pessimism that he can not escape from the old logic of control and subordination forever. The imperialism does not have the outside. 『The Border』 is the pessimistic report about the history and the future of the human beings who survive in the border of the empire in the age of imperialism in whichever form it expands ceaselessly.

Of course this pessimism does not restrict in the reality of 1960s. There are not more borders expanding nor the excitement of setting new frontiers, however, it has been long that the imperialism has possessed the entire earth by taking a new name as the globalization not as the specific territory but as the cultural name. Even though they stand against the imperialism as the name of the post-colonialism, the spirit and culture of outsider do not escape from the limits of the occidental. The imperialism and the border have been the unchangeable truth. In this point, 『The Border』 can be the sign not only of the 1960s but also of the gloomy present and future of global village age in which it consists of one center and immense borders. This is the meaning of the saga novel 『The Border』.

Key Words : post-colonialism, revolution theory, binary opposition, violence.
the centralization of the border, border theory, nihilism, the
literature of the border, overcome of colonial consciousness